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방안 연구

- 우즈베크인 학습자의 읽기 교육을 중심으로 -

서 미 량 니자미 사범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한국어학과

МЕТОДЫ ОБУЧЕНИЯ КОРЕЙСКИМ ТРАДИЦИОННЫМ СКАЗКАМ СОЦИАЛЬНОЙ ТЕМАТИКИ

(на основе преподавания студентов)



<https://doi.org/10.5281/zenodo.10199260>

Со Ми Рянз - Магистрант 1 курса, Ташкент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 Низами

초록:

이 논문은 우즈베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우즈베크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한국어 읽기교육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한국의 전래동화를 교수 - 학습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하였다.

한국어와 비슷한 문법 구조를 사용하는 우즈베크인 학습자 대상의 한국어와 문화를 교수하기 위한 다양한 교수 - 학습 자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전래동화가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기에 매우 효과적인 자료라고 판단하였다. 전래동화는 문학적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화가 가지는 흥미 유발적 성격 덕분에 학습자의 동기 유발이 쉽다. 전래동화의 활용은 학습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시대적 공간적으로 문화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읽기 능력 향상 및 한국 문화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전래동화가 한국어 읽기 교육을 위한 텍스트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키워드: 전래동화, 읽기 교육, 우즈베크인 학습자, 학습 전략

1. 서론

1-1 본 연구의 목적

한국어를 학습하는 많은 우즈베크인 학생들이 있는데, 그들 중 다수가 기초생활에 관련된 기본적인 한국말은 할 줄 알지만 한글을 제대로 읽을 수 없어서 목표어의 어휘를 늘리는 데 실패하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어 읽기를 어느 정도 배운 학습자들의 경우에도 읽기 자료에 대한 어려움이나 지루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읽기를 어려워하기도 한다.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읽기 교육의 목표는 한국어로 된 글을 하나의 담화로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읽기 교육에서의 흥미 유발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나타내는 표현이나 어휘들이 많이 사용된 전래동화를 활용해서 목표어의 어휘력과 독해력 향상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외국인 학습자에게 전래동화를 교육하는 것은 읽기 능력 향상과 함께 한국인의 생활과 가치가 반영된 한국 문화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래동화를 교육하는 것은 학습 흥미를 불러일으키기에 용이하며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이다.

2. 본론

2-1. 전래동화의 특징

전래동화는 입말로 전승되다 기록된 문학이라는 점에서 음성언어의 특성을 지니고 화자가 청자를 두고 이야기하는 형식을 가진다. 그리고 단순 반복적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이야기마다 서두와 결말이 비슷한 형식을 지니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보식 전개 방식으로 사건 중심의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주제를 가진 아동을 위한 교훈적인 도덕 교육 자료의 역할을 하고, 민족 또는 나라의 특수한 정서 문화를 반영하면서 인류 보편적 정서와 문화를 함축하고 있으며, 민담의 한 부류로 비슷한 줄거리의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분포한다는 특징도 지닌다.

2-2 전래동화 읽기를 통한 이해력 증대

전래동화는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구비 전승된 민족의 공동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전래동화는 그 안에 한국 민족만의 생활과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으며, 한국인의 심성과 관습, 예의범절, 관용 어구와 속담, 해학과 풍자 등 한국의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즈베크인들이 대장금 드라마를 보고 칭찬을 마다하지 않는 것도 한국인의 심성과 관습, 예의범절이 우즈베크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비슷한 문화권의 전래동화에서는 보편적으로 읽힐 수 있는 구조와 내용의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전래동화를 통해 언어를 학습하면 맥락 속에서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된 상황에서 언어를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보다 단어나 문장을 기억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런 점 때문에 어휘나 문법을 교수할 때, 맥락 내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동화 역시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의식적으로 어휘와 문법을 습득하게 된다.

2-3 읽기를 통한 유창성 증대

대부분의 읽기 수업은 여러 가지 여건상 눈으로 읽고 독해력을 테스트 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래동화는 동화구연의 방법으로 재미있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전래동화 읽기는 먼저 교사가 시범을 보이거나 다른 미디어를 사용해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들려준 뒤에 학습자가 한 번씩 소리 내어 읽어보고 팀을 구성하여 역할극을 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한 줄 씩 소리 내어 읽게 하고 녹음을 한 뒤에 함께 들어보면서 발음의 문제점을 스스로 깨닫고, 동료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방법을 활용하면 된다.

전래동화를 읽으면, 처음 한 글자 한 글자 책을 읽던 습관이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연음으로 읽게 된다. 책을 읽는 속도가 점차적으로 빨라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르는 단어에 대한 이해가 점차 높아지면서 읽기에 대한 자신감과 글의 내용에 대한 표현 욕구도 생겨난다.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바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습득한 기본적인 문자 해독 기술과 통찰을 가지고 자신의 지식이나 언어를 검증해 보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학습자들은 세부적인 부분을 파악하는 것을 배우며, 문자 해독에 대한 자신감과 문맥 사용의 기술, 유창성과 속도도 얻게 된다. 후에는 동화의 내용이나 주제, 구조가 친숙하게 되어 구조가 친숙한 책을 읽으면 유창성을 발달시킬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3. 결론

이 논문에서는 전래동화의 특징과 전래동화 읽기를 통한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전래동화 읽기가 어떤 면에서 목표어인 한국어 습득에 도움이 되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전래동화는 한국어의 언어 기능적인 습득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력 증대를 가져오는 좋은 학습 소재가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은 한국 전래동화를 서로 비교해서 학습하거나 다른 나라들의 전래동화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도 교육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되며,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1. 안수현(2019) <우즈베키스탄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2. 오르티코바 크리스티나(2019) <한국전래동화와 우즈베크 전래동화의 비교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3. 리양자치(2018)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읽기·말하기 통합 교육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